

‘포천메나리’ 道 청소년 민속예술제 大賞



‘포천메나리 농악놀이’ 팀이 제5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포천메나리 농악놀이’ 팀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간에 걸쳐 열린 제5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청소년들이 우리민족문화의 정서가 담긴 전통민속예술을 직접

이 체계하여 잊혀져가고 극히 일부 부락에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이영재 포천메나리 예능보유자가 직접 나서서 포천종합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등 연출팀을 구성해 재현한 것이다.

‘포천메나리’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던 때에 농사일의 힘든 과정 중 고된과 지루함을 잊고 협동심을 자아내 능률을 올리기 위해 불려졌던 농요 중 논매기 노래의 일종으로, 불과 20여년전까지만 해도 일터에서 많이 불려졌으나 최근에는 농악이 기계화로 거의 소멸된 실정이다.

살포 및 기계화로 거의 소멸된 실정이다. 게다가 기능 보유층인 노인들

이 타계하여 잊혀져가고 극히 일부 부락에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이영재 포천메나리 예능보유자가 직접 나서서 포천종합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등 연출팀을 구성해 재현한 것이다.

한편, ‘포천메나리 농악놀이’ 팀은 내년 경기도를 대표해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문화칼럼

모두가 힘을 합해야 자랑스러울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 흔히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주거를 온돌문화에 기인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온돌문화에는 아이러니한 경계선이 있어 아궁이가 가까운 쪽의 방바닥인 아랫목과 아궁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온기가 거의 없어서 명절이나 집안에 애경사가 되어야 불을 많이 넣어 겨우 미지근해지는 윗목으로 나누어서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아랫목은 아버지의 때늦은 식사를 물어 놓았고 전통가정에서 음식에 필요한 발효를 해야 할 때,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실 때도 아랫목은 중요한 의전의 장소이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아랫목은 그 자취를 감추고 서구식 보일러의 등장으로 아래위목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는 전통적인 온돌이 없어진 것에 비하여 오히려 사회적으로나 문화·예술적으로는 따뜻한 곳과 찬 곳이 확연하게 구별되어 부익부 빈익빈의 경로를 갈고 없이 질주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한 가지 예로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지역축제의 이율배반적 초청 공연의 난립을 들 수 있다.

요즘 들어 각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미려한 공연 축제들도 제법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지역에서도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포천시라는 특색 있는 주제식으로 계절적인 환경을 배경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그 행사에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의 손길과 숨결이 살아있는 불거리와 정신이 들어있지 않아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진정으로 사람과 자연이 만나게 하려면 우리에게만 존재하는 몸짓과 숨소리가 들어있어야 순수하고 의미 있고 독특한 불거리로 제공될 수 있으며 적어도 우리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는 이 지역에서 살아오거나 현재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진실로 사람과 자연의 만남이라는 말이 올바르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지역문화예술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내 고향에 존재하는 불거리와 이 고장을 지키며 활동하고 있는 순수 공연예술인들의 활동 기회를 넓혀주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성의 문화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문화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는 이 지역 출신의 모든 예술가의 조언과 참여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현재 우리들은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좌충우돌 걸어가고 있는가?

자연과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그 사이에는 문화와 예술이 존재하여야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고 적어도 자연 속에 존재하는 문화재의 형성과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서 만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자연을 보존하는 것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여야 자연과 동화하는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축제에 고유의 공연예술을 참여시켜 그 몸짓을 가일층 진화시켜서 불거리의 체계화에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기



이희용 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장

이희용은 생활체육이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하듯이 지역 문화예술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체육에만 신경을 쓰고 많은 지원을 한 곳에만 집중한다면 기형적인 삶의 왜곡된 모습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 유물과 유적의 체계적 발굴과 보존에도 심혈을 기울여 우리 것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문화적 소외지역으로 스스로 자인하지말자. 우리도 혼신의 힘을 다해 찾아내자. 그리고 일회성 행사를 위한 예산의 집행에 최소화 하고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투자하자. 우리에게 존재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스스로 우리 것을 찾아내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거리마다 포천을 빛낸 조상의 이름으로 길을 명명하고 곳곳마다 올 곳은 선비정신이 살아 숨쉬는 나의 고향을 만들려면 시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식의 집적력의 뱃머리를 바꾸어야 한다. 우리도 누구보다 송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랜 세월을 이어온 조상님들의 숨소리를 간직한 자랑스런 시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더 이상 지역을 지키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힘들게 하는 주민의 대표는 그 주민을 힘들게 하므로 대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그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주위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불타는 애항심으로 고향의 문화와 예술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진정으로 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공직자와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아끼면서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런 포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천문화원 청소년 문화유적답사 실시

17일부터 24일까지 초·중학교 3백20명 대상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관내 초·중학교 8개교 3백20여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한다. 이번 답사는 사라지는 청소년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청소년들이 우리민족문화의 정서가 담긴 전통민속예술을 직접 배가시켜 나간다는 것. 특히 문화유산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으로 관내 유적지인 충목단을 비롯 화산서원, 고인돌, 청성공원, 인평대군치제문비 등 고장의 문화재를 비롯 명현과 석학, 충·효·열 인물과 의병 활동으로 순국하신 우국충정의 고귀한 정

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내고 장의 문화유적을 바로알고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역사의 재조명과 자긍심 고취 등 가족단위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신, 충성심 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

한편 포천문화원에서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건전문화 정착과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정신과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10)

추석(秋夕)



금년 추석은 양력으로 9월 28일이다.

‘추석절’은 한반도의 ‘추수감사절’이다. 5월 농부, 8월 신선(神仙)이란 속담이 있듯이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8월의 명절로 매달 보름이 있지만 음력 8월 보름달은 첫 수확의 기쁨 호호한 마음으로 맞는 명절로 달도 더 크고 둥글게 보이며 웃는 모습의 달이며 처녀에게는 그리운 낭군 님을 맞이할 활짝 필 달이며 미(美)의 상징이다.

그래서 대표적 보름명절이며 ‘달의 제전’이고 ‘만월의

례(滿月禮)’이다. 추석의 우리말은 ‘가위’이고 한자로 가배(嘉俳)이고 중추(中秋)이다. 풍요의 계절, 추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날씨, 둥근달, 수확만 하면 일손도 쉬는 일년 중, 최고의 명절이다.

‘새웃’, ‘햇곡식’, ‘송편(달을 닮은 송향기 그윽한 떡)’, ‘술(술잔 속에 둥근 달과 닮은 얼굴 비추는 술)’이 모두 조상님의 보살핌이 아니겠는가?

‘자랑스런 조상님’, ‘장한 자손들의 효도와 건강과 출세’를 이야기하며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먼 곳에동근 살던 친척들도 모이고 하늘에 뜬 둥근 달을 바라보며 놀이와 음식을 즐긴다.

내가 살던 옛 고향 ‘옛동지’를 찾아 고생이 되더라도 환한 얼굴로 달려간다.

고향없는 사람, 못 가는 고향, 잃은 고향의 백성들은 더

욱 슬퍼 달이 운다고 하였다. 추석놀이는 ‘강강술래’가 으뜸이며 ‘거북놀이’, ‘소놀이’ 등이 있는데 모두 수확의 기쁨과 따스한 농사지의 농민에 대한 고마움, 마을의 단결의 과시와 ‘한마음 의식’을 공고히 하는 놀이로 부녀자들도 신바람을 내며 뛰어오르며 소리치며 놀았다. 한반도 명절 중 그 역사가 깊은 명절 중 하나이다.

‘김쌈내기’를 편질다 하여 이긴편에게 진편이 음식을 대접하는 놀이를 신라 이후 여러 해 동안 계속해 왔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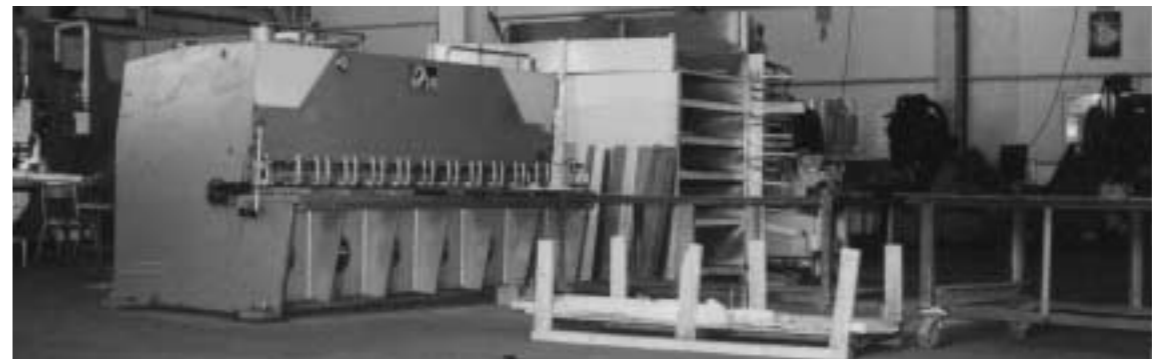
배불리 먹고 옷감 짜는 시무(始務)놀이여서 재미있다. 음식도 개송편, 방송편, 동부송편, 팔송편, 대추송편, 꿀송편, 무채송편 등 다양하며 대추는 임금, 밥은 삼정승을 나타내는 제물이고 검은 육탄서는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과실의 씨의 수를 세어 그

수로 지은 별명이 추를 말리는 진홍색 날개 모습은 그림 같으며 ‘꽃밥’, ‘황물’의 맛은 상큼하고 구수한 학문의 맛이라고 선비들이 즐겼는데 대추의 단맛은 고향의 맛의 대표적 미각이며 대추를 보고 못 먹으면 늙는다고 하여 지나가는 길손이 따 먹어도 타닥하지 않았으며 밤도 그랬다. 육탄서란 별명을 가진 검은 소금물을 알맞게 타서 찹탕가 두면 하룻만에 짙은 맛이 없어져 맛나게 먹을 수 있다.

밤, 대추는 내 고향 포천의 특산이었으나 감은 귀하였다. 밤을 말려 황물을 만들어 팔아 대학공부시킨 집도 있었던 효자 추석 과실이다. 추석날 포천에는 다른 고장 보다 특별한 추석놀이는 없었으나 부자가 가난한 집 문안에 물레 음식을 전하는 풍속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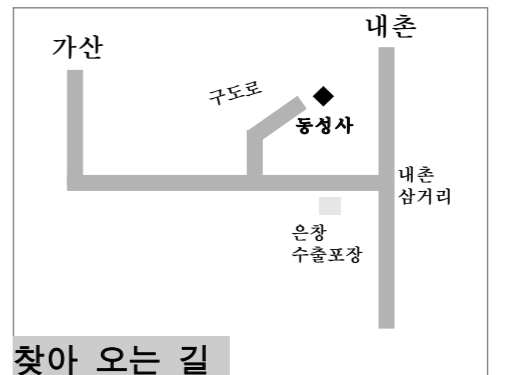
필지연(필자) 02) 932-2434

가구 장식용, 인테리어 소품생산 전문 동성사



생·산·품·목

- ◇ 오디오 장식장
- ◇ 인테리어 소품
- ◇ 가구 장식품 부품
- ◇ 불박이장 부품
- ◇ 드레스룸 장식장 부품 (APT)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1/ Tel: 031)532-2123, Fax: 031)532-2122/ 대표 : 윤 이 용